

발 간 사

덴마크 국립환경연구소 소장이자 덴마크 오르후스대 통계학 담당교수인 비외른 롬보르는 “회의적 환경주의자(the Skeptical Environmentalist)”라는 저서에서,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지구환경은 줄곧 좋아지고 있으며, 종말이 닥쳐올 듯이 외쳐되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은 근거없는 헛소리일 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외른 롬보르의 낙관적인 주장은 서구 선진국의 환경문제의 개선을 생각해 보면 타당한 일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위에서 피부로 느끼는 환경문제는 꼭 그러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긴 장마와 여름 유럽에서 발생한 이상고온 등과 같은 이상기후를 생각해 보면, 실제 지구환경문제나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이지 개선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끊임없는 연구가 요구되는 것이고, 이러한 연구 중에서 최종적이고 종착적으로 범규범을 연구하는 것이 환경법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법의 중요성은 실제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법학회는 바로 이러한 환경법에 대한 연구에 중심에 두어져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들은 더욱더 분발하여 환경법에 대한 연구를 배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법 연구는 25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전통이 깊은 학회로서, 우리나라 환경문제 연구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 번에 발간되는 환경법 연구 제25권 1호로 이러한 회원들의 환경문제와 환경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물을 묶은 것입니다. 환경법에 대한 귀중한 옥고를 제출하여 주신 모든 필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환경법연구 제25권 1호는 현재 환경법학회 회장으로 계시는 天鳳 石琮顯 회장님의 화갑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념호가 환경법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회장님에게 조그마하나마 감사의 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 학회지가 나오기까지 수고하여 주신 학회관계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03. 9. 22.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박 수 혁